

Family • Faith • Holy Spirit • Mission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순모임 프리뷰 1 (해설)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1, 9월 1일 본문, P180)

제목 : 온전하고 깨끗한 삶의 비결

본문의 핵심 Focus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킬 때, 죄를 멀리하며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 열기 | Ice Breakers

19세기 영국 웨일스의 한 소녀는 성경을 읽고 싶어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 성경을 구매했습니다. 이 일은 영국성서공회 설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물건을 너무 갖고 싶었던 경험이 있나요?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시편 119:1-16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1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 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 여	1 행위가 흠이 없고 여 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 다.	1 Blessed are those whose way is blameless, who walk in the law of the LORD!
2 여호와와의 증거들을 지 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 다	2 여호와와의 교훈을 지키 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 와를 찾는 사람들은 복 이 있습니다.	2 Blessed are those who keep his testimonies, who seek him with their whole heart,
3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3 그들은 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고 여호와와의 길 로 행합니다.	3 who also do no wrong but walk in his ways!
4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4 주께서는 주의 교훈을	4 You have commanded your precepts

법을 잘 지키게 하셨 나이다 5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 소서 6 내가 주의 모든 계명 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 럽지 아니하리이다 7 내가 주의 의로운 판 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 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 하리이다 8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9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 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 름이니이다 10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 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 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 이다 12 찬송을 받으실 주 여 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3 주의 입의 모든 규례 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 하였으며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 하셨습니다. 5 주의 율례들을 지키도 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 소서! 6 내가 주의 모든 계명 을 깊이 되새기면 수치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 다. 7 내가 주의 의로운 법 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 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 니다. 8 내가 주의 율례를 지 킬 것이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9 청년이 어떻게 그 길 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 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 다. 10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 의 계명에서 벗어나 방 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 서. 11 내가 주께 죄짓지 않 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 음에 품었습니다. 12 오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to be kept diligently. 5 Oh that my ways may be steadfast in keeping your statutes! 6 Then I shall not be put to shame, having my eyes fixed on all your commandments. 7 I will praise you with an upright heart, when I learn your righteous rules. 8 I will keep your statutes; do not utterly forsake me! 9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By guarding it according to your word. 10 With my whole heart I seek you; let me not wander from your commandments! 11 I have stored up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12 Blessed are you, O LORD; teach me your statutes! 13 With my lips I declare all the rules of your mouth.
--	--	---

14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5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16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3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법도를 내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14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좋아하듯 나는 주의 교훈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15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하고 주의 길을 깊이 생각하며 16 주의 율례를 기뻐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14 In the way of your testimonies I delight as much as in all riches. 15 I will meditate on your precepts and fix my eyes on your ways. 16 I will delight in your statutes; I will not forget your word.
---	--	---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119편은 흔히 ‘알파벳 시’ 또는 ‘답관체(acrostic)시’라 불립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스물 두 자를 순서대로 활용해, 각 글자로 시작하는 절을 여덟 개씩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총22개의 알파벳이 각각 여덟 절씩 모두 176절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이룹니다. 이처럼 모든 알파벳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활용해 구성한 방식은 말씀을 더 쉽게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과 충만함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형식이기도 합니다.

관찰과 묵상 Observation and Meditation

1.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나요?(1-2절)

답: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와 증거들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해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따르는 것과 율법주의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드러내며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지만,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롬3:20).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롬3:28),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2.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나요?(9,11절)

답: 주의 말씀만 지키며,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둬으로써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해설: 청년기는 힘과 열정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감정과 욕망에 휩쓸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청년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 생각과 욕망을 바로잡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삶의 선택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정결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Personal Application & Sharing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지켜 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요? 특정 상황에서 말씀을 떠올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세요.

포인트: 순장님은 순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나누고 말씀 암송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나눔을 이끌어 주세요.

(예시)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늘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음악을 듣기보다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Tip: 풍성한 나눔을 위해 아래 제시된 ‘추가 질문’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이며, 내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순모임 프리뷰 2 (해설)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4, 9월 24일 본문, P186)

제목 :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

본문의 핵심 Focus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입니다.

마음 열기 | Ice Breakers

1924년 파리올림픽 100미터 달리기 금메달 후보였던 에릭 리델은 예선전이 주일에 열린다는 이유로 출전을 포기했고, 이후 400미터 경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원칙이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한 적이 있나요?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역대상 14:1-17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1 그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 주려고 백향목과 함께 석수장이와 목수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1 And Hiram king of Tyre sent messengers to David, and cedar trees, also masons and carpenters to build a house for him.
2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	2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 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이셨	2 And David knew that the LORD had established him as king over Israel, and that his kingdom was highly exalted for the sake of his people Israel.

을 낳았더라 3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4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밍과 나단과 솔로몬과 5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6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7 엘리사마와 브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8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9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10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	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또 많은 아내들을 얻었고 더 많은 아들딸들을 낳았습니다. 4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밍, 나단, 솔로몬, 5 입할, 엘리수아, 엘벨렛, 6 노가, 네벡, 야비아, 7 엘리사마, 브엘라다, 엘리벨렛입니다. 8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됐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온 블레셋 군대가 일어나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9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공격했습니다. 10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3 And David took more wives in Jerusalem, and David fathered more sons and daughters. 4 These are the names of the children born to him in Jerusalem: Shammua, Shobab, Nathan, Solomon, 5 Ibhar, Elishua, Elpelet, 6 Nogah, Nepheg, Japhia, 7 Elishama, Beeliada and Eliphelet. 8 When the Philistines heard that David had been anointed king over all Israel, all the Philistines went up to search for David. But David heard of it and went out against them. 9 Now the Philistines had come and made a raid in the Valley of Rephaim. 10 And David inquired of God, "Shall I go up against the Philistines? Will you give them into my hand?" And the LORD said to him, "Go up, and I will give them into your hand." 11 And he went up to Baal-perazim, and David struck them
---	--	--

라 하신지라 11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은 물을 쪼갬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흘시켰다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12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 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13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14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뿔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5 뿔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16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11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블레셋 군사들을 쳐부수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붓물을 터뜨려 물이 쏟아지듯이 내 손으로 내 원수들을 치셨다." 그래서 그곳은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2 블레셋 군사들은 우상들을 그곳에 두고 달아났습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불사르라고 명령했습니다. 13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공격했습니다. 14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장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 주변에서 원수를 그리듯 뒤를 돌아가서 뿔나무 맞은편에서 공격해라. 15 뿔나무 꼭대기에서	down there. And David said, "God has broken through my enemies by my hand, like a bursting flood." Therefore the name of that place is called Baal-perazim. 12 And they left their gods there, and David gave command, and they were burned. 13 And the Philistines yet again made a raid in the valley. 14 And when David again inquired of God, God said to him, "You shall not go up after them; go around and come against them opposite the balsam trees. 15 And when you hear the sound of marching in the tops of the balsam trees, then go out to battle, for God has gone out before you to strike down the army of the Philistines." 16 And David did as God commanded him, and they struck down the Philistine army from Gibeon to Gezer. 17 And the fame of David went out into all lands, and the LORD
--	---	---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싸우러 나가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려고 네 앞서 먼저 나가셨다." 16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고 다윗의 군사들은 기브온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군사들을 쳐 죽였습니다. 17 이렇게 해 다윗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brought the fear of him upon all nations.
--	---	---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주변국이 두로임을 밝히며, 히람왕의 도움으로 궁전이 건축되었음을 기록합니다(1절). 백향목과 기술자를 보낸 히람의 지원은 단순한 우호 관계를 넘어, 다윗 당시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사울 시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반복적인 침략을 감당해야 하는 약소국에 가까웠습니다(10장). 이러한 변화는 다윗의 외교적 수완이나 정치적 성공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나라를 높이셨다는 선언입니다(2절).

관찰과 묵상 Observation and Meditation

1.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왔을 때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셨으며, 순종의 결과는 어떠했나요?(8-11절)

답: 하나님이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하시며 그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블레셋을 흠으셨습니다.

해설: 블레셋이 공격해 오자,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10절). 그는 올라가서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전쟁 결과가 하나님 손에 달렸는지 하나님께 여쭙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승리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전쟁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다윗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승리 후 다윗은 그곳을 ‘바알브리심’(하나님이 흠으셨다)이라 불렀는데, 이는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2. 두 번째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지시하셨나요?(13-15절)

답: 올라가지 말고, 뿔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면 싸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해설: 올라가서 싸우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승리를 경험한 다윗은, 자신의 승리 공식을 재사용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두 번 묻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울과 대비되는 행동입니다(참조, 14절). 하나님은 이전과 달리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기습하되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싸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의 경험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적용과 나눔 Personal Application & Sharing

내가 임의로 행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행할 일을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포인트: 순장님은 순원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시)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서를 섬길지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겠습니다.” “팀 회의 시간에 안건을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Tip: 풍성한 나눔을 위해 아래 제시된 ‘추가 질문’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승리한 다윗의 삶이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9월 주요 사역을 위한 기도제목

사역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사역팀의 리더십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하반기 양육강좌를 통해 성도님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하소서.

각 순마다 생명의 삶 큐티가 생활화 되어 말씀과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026 가을 수요여성예배가 은혜가운데 진행되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시애틀 51 기를 통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성경적인 아버지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고, 가정을 세워가게 하소서.

51 기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을 통해 동반자로서 받았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소서.

관계기술훈련 5 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관계와 감정 훈련을 통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미션게이트'를 통해 매주일 드리는 1 분의 작은 기도가 모여 큰 사랑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동대원으로서 선교사님들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순들을 섬기는 순장, 순모님에게 리더십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 됨을 이루게 하소서.

EW 성도들에게 예배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새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순과 순장님들이 잘 세워지게 하소서.